

## 통제양식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박성현\*    성승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Shapiro(1994)는 기존의 통제 개념에 대하여 일차적 통제의 부정적 측면(부정적 주장양식) 과 이차적 통제의 긍정적 측면(긍정적 수용양식)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통제양식들이 어떻게 조합 되었을 때 심리적 적응에 최적으로 기여하는 가를 알아보고자했다. 이를 위해 4가지 통제양식 점수를 중위수를 기준으로 상, 하 집단으로 구분한 후, 긍정적 주장양식과 긍정적 수용양식이 조합된 4개의 집단과 부정적 주장양식과 부정적 수용양식이 조합된 4개의 집단을 구성하였다. 집단 간에 심리적 적응지표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변량 분석(AN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둘째, 부정적 주장양식과 긍정적 수용양식이 적응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적응지표들에 대해 이들 두 가지 통제양식과 긍정적 주장양식 및 부정적 수용양식의 상호작용 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긍정적 주장양식과 긍정적 수용양식 점수가 모두 높은 집단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긍정적 통제감을 더 지각하고, 부정적 통제감은 덜 지각했으며, 우울 수준 또한 낮았다. 반면, 부정적 주장양식과 부정적 수용양식의 점수가 모두 높은 집단은 긍정적 통제감은 낮게 지각하고 부정적 통제감, 우울 및 불안의 점수는 높았다. 부정적 주장양식은 다른 통제양식과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을 떨어뜨린 반면, 긍정적 수용양식은 다른 통제양식과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을 증진시키거나 적응의 악화를 완충하는 작용을 하였다.

주요어: 통제감, 통제양식, 긍정적 수용양식, 부정적 주장양식, 심리적 적응

통제감을 유지하는 능력은 정신건강의 필수적인 요소이며(Shapiro & Astin, 1998; Taylor & Brown, 1988, 1994), 신체적인 건강에도 중요하다(Affleck, Pfeiffer, & Fifield, 1987; Peterson & Stunkard, 1989). 통제감의 상실은 스트레스(Wrosch, Heckhausen, & Lachman, 2000)와 불안 관련 장애(Shapiro, 1990), 우울증(Soenens, Luyckx, Vansteenkiste, Luyten, Duriez, & Goossens, 2008), 약물남용(Marlatt, 1983), 섭식장애(Souza, Mussap, & Cummins, 2010) 및 회복이 불가

능한 질병(Wahl, Becker, Burmedi & Schilling, 2004)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Taylor와 Brown(1994)은 심리적으로 정상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임상 그룹에 비해 통제감에 대한 지각이 더 크다고 보고했다. 정상 그룹의 사람들은 임상 그룹에 비해 상황에 대한 자신의 통제 능력을 실제보다 과대 평가하며, 통제감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보다 낙관적으로 지각했다. 또한, 자신의 취약성

\* 교신저자 : 박성현,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화: 02-890-2832, E-mail: gchio@hanmail.net

이나 상황의 위험을 저 평가하는 등 통제감에 대한 긍정적 환상을 보였다. 통제감에 대한 지각이 실제 자신의 통제 능력보다 과대 평가되고 환상적일지라도 통제감을 낮게 지각하는 것보다는 정신건강 면에서 더 긍정적이었다.

전반적으로, 통제에 관한 연구들은 긍정적인 통제감의 지각이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여왔다. 그러나, 통제에 관한 논의들 중에는 통제감을 추구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일치와 부정적 측면들을 지적하는 연구들 또한 상당히 많다. Evans, Shapiro, 및 Lewis(1993)는 통제를 위한 시도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보고한 60여 편의 논문들을 리뷰한 후 통제에 관한 그간의 논의가 크게 두 가지의 패러다임에 간혀 있다고 비판하였다. 첫째는 적극적이고, 도구적인 통제(active & instrumental control)를 갖는 것은 긍정적이며, 둘째는 통제를 더 많이 할수록(혹은 통제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믿을수록) 더 좋다는 것이다. 여기서 적극적, 도구적 통제란 환경을 개인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이들의 연구는 적극적, 도구적 통제 방식이나 통제를 위한 추구 노력이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건강이나 적응에 부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Evans et al., 1993) 통제와 건강 간에 발생하는 불일치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범주는 통제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은 충분하나 통제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혹은 자기-효능감이 낮거나 통제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쉽게 자포자기하거나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 범주는 통제를 발휘하기에 환경적인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통제를 원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즉, 효과적으로 적극적인 통제를 발휘할 수 없는 환경적인 상황이지만, 통제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갖거나 통제감에 대한 높은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개인의 통제를 넘는 사건이 발생할 때(예로, HIV와 같은 회복이 불가능한 신체적 질병을 갖게 된 경우) 지속적으로 자신의 욕구대로 상황을 통제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Thompson, Collins, Newcomb, & Hunt 1996). 특히, 두 번째 범주에 속한 통제의 불일치 문제는 적극적이고 도구적인 통제를 많이 할수록 더 좋다는 전통적인 심리학의 패러다임을 직접적으로 반박하고 있으며, 통제와 건강 간의 선형적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Shapiro, Schwartz, & Astin, 1996). 이 연구(Evans et al., 1993)는 적극적 통제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에서 과도한 통제 욕구나 과대 평가한 자기-효능감에 근거한 통제 노력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전통적인 통제 패러다임은 정상적인 통제는 통제를 적극적으로 획득하는 것이며, 수동적이고 철수된 방식의 내향적 행동은 통제의 상실로 간주하여왔다(김상희, 최정훈, 1990). 이러한 전통적인 패러다임과 달리 Rothbaum, Weisz, 및 Snyder(1982)는 이차적 통제라는 새로운 통제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이차적 통제를 자기를 환경에 합치되도록 하는 시도로 정의하였다. 이는 자신의 욕구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일차적 통제와 구분된다. 이들은 수동성이나 순응과 같은 내향적 행동이 통제 불능의 지각으로부터 오는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모한 도전이 가져오는 실패와 무기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통제 유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조공호, 2003).

이차적 통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들은 통제 유형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과 성별, 상황 및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 및 경제적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젊은이들의 경우 일차적 통제 유형을 더 많이 사용 할수록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았으나, 노인들의 경우 이차적 통제 유형을 더 많이 사용 할수록 높은 안녕감을 보고하였다(Wrosch, Heckhausen, & Lachman, 2000). 만성적 질병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경우 이차적 통제 시도가 일차적 통제 시도보다 심리 사회적 적응을 더 잘 예측하였다(McQuillen, Licht, & Licht, 2003). 시각을 상실한 노인들의 적응에서 통제 유형의 역할을

연구한 Wahl, Becker, Burmedi 및 Schilling(2004)은 선택적인 이차적 통제가 긍정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Chipperfield 와 Perry(2006)는 성차에 따른 통제 유형의 적응적 기능을 보고하였다. 남성의 경우 일차적 통제를 더 많이 사용 할수록 병원 입원률이 낮은 반면, 여성의 경우 이차적 통제를 더 많이 쓸수록 병원 입원률이 더 낮았다.

문화적 차이에 따라 통제 유형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연구들도 있다. Weisz, Rothbaum 및 Blackburn(1984)은 미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통제 유형에 대한 비교 문화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자녀 양육 방식, 사회화 양식, 종교 및 철학, 직업 및 심리치료 방식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경우 일차적 통제가 선호되고 적응적인 기능을 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이차적 통제가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지며 적응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집단주의적 문화 성향을 갖는 사회에서는 이차적 통제가 선호되고, 개인주의적 사회에서는 일차적 통제 유형의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Morling, Kitayama, & Miyamoto, 2002). 이는 싱가포르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Chang, Chua, & Toh, 1997)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상진, 1995) 및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Bond & Hwang, 1986)에서도 밝혀졌다(조궁호, 2003에서 재인용). Rothbaum 등(1982)은 통제 유형의 적응적 기능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방향에 따라 다르며(즉, 성취와 도전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일차적 통제가 적응적인 반면, 안전과 만족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이차적 통제가 적응적이다), 궁극적으로 적응이란 상황과 목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통제 유형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유연하고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제안했다(Morling & Evered, 2006).

Shapiro와 Astin(1998)은 통제와 관련된 세 가지 기본 전제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모든 개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통제감을 추구한다. 둘째, 개인들이 통제감을 얻고자 시도하는데 있어 건강한 방식과 불건강한 방식이 존재한다. 셋째, 사람들이 통제감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선호하는 통제 프로파일에는 개인 차이가 있다. Shapiro 등(1996)은 통제와 관련된 심리학적 논의들을

통합할 수 있는 통제 모형을 제안하면서, 통제를 통제감(a sense of control), 통제욕구(a desire for control), 및 통제양식(modes of control)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통제감은 “한 개인이 통제를 갖고 있다는 지각 혹은 자신이 원하면 그러한 통제를 얻을 수 있다는 신념”이다. 통제욕구는 통제의 동기(motivation of control)로서 한 개인이 통제에 대한 욕구가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통제양식은 통제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에 관한 인지적, 행동적 양식으로서, 긍정적 주장양식(positive assertive mode), 긍정적 수용양식(positive yielding mode), 부정적 주장양식(negative assertive mode), 그리고 부정적 수용양식(negative yielding mode)으로 구분된다. 긍정적 주장양식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통제방식으로서 전통적인 일차적 통제 혹은 적극적 통제와 동일한 개념이다. 긍정적 수용양식은 경험을 흘러가게 하고, 수용적이며, 유연하고, 순리에 따르는 통제방식으로서 이차적 통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 주장양식은 과도하게 통제적이며, 요구적이고 경직된 방식의 외향적 통제방식이며, 부정적 수용양식은 무기력, 포기과 같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며 통제 노력을 하지 않는 방식이다(성승연, 박성현, 2008).

이들(Shapiro et al., 1996)의 통제양식과 관련된 4가지 구분은 전통 심리학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일차적 통제의 부정적인 측면(부정적 주장양식)과 이차적 통제의 긍정적 측면(긍정적 수용양식)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전통적인 통제 패러다임에서는 적극적이고 주장적이며 변화를 추구하는 통제 방식은 정상적인 반면, 통제에 대한 노력을 철수하는 방식의 행동은 병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양극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Shapiro 등(1996)이 제안한 통제양식은 적극적 통제의 부정적 측면과 수용적 통제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구성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통제양식에 대한 이원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그간의 통제 연구에서 제안된 일차적 통제와 이차적 통제의 적응적 기능을 보다 입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4가지 통제양식 척도는 Rothbaum 등(1982)이 주장한 두 가지 유

형의 통제방식의 균형과 조합이 적응을 결정한다는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Shapiro 등(1996) 또한 전통적 통제 패러다임에서 말해왔던 정상적 통제(일차적, 적극적 통제)의 개념을 넘어선 최적의 통제(optimal control)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최적 통제의 기준으로 상황과 목표에 부합하는 주장 양식과 수용 양식의 균형과 통합적 사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용양식은 자신의 욕구나 기대를 환경에 부합하도록 조절한다는 의미에서 이차적 통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Shapiro 등(1996)에 따르면, 수용양식은 동양의 철학적, 영적 전통에서 강조하는 무위적 통제 방식을 원용하여 개념화한 것이다. 최근 심리치료 영역에서 동양의 명상이나 수용적 접근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김정호, 2004; 문현미, 2005). 이런 면에서 수용적인 통제양식이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Shapiro(1994)의 통제 척도(Shapiro Control Inventory)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분석하였다. 첫째, 심리적 적응에 기여하는 최적의 통제양식은 무엇인가를 확인하였다. Shapiro 등(1996)이 제안한 바와 같이 주장양식과 수용양식의 어떠한 조합이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통제 패러다임에서는 긍정적 주장양식(일차적 통제)은 건강과 연결되고 부정적 수용양식(일차적 통제의 상실)은 병리와 연결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Shapiro(1994)는 부정적 주장양식(과도한 일차적 통제)과 긍정적 수용양식(이차적 통제)이라는 새로운 통제양식을 제안하면서, 긍정적 주장양식과 긍정적 수용양식이 결합될 때 최적의 심리적 적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제안했다. 따라서, 분석의 주요 관심은 긍정적 주장양식과 긍정적 수용양식의 조합 및 부정적 주장양식과 부정적 수용양식의 조합에 따라 심리적 적응지표(긍정적 통제감, 부정적 통제감, 우울 및 불안)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는가였다.

둘째, 통제양식에 관한 새로운 개념인 긍정적 수용양식과 부정적 주장양식이 심리적 건강에 의미있는 설명력을 갖는가를 알아보려고 했다. 성승연과 박성현(2008)의 선행 연구에서 긍정적 수용양식과 부정적 주장양식은 심리적 건강의 지표들(우울, 불안,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과 상관이 매우 낮거나 없었다. 또한, 기존의 통제 관련 척도(통제 소재 등)를 통제상태에서 건강 지표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력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Shapiro(1994)가 제안한 새로운 통제양식들의 임상적인 효용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들(성승연과 박성현, 2008)의 연구는 개별적인 통제양식과 건강 지표 간의 단순 상관 분석 혹은 개별적인 통제양식들의 추가적인 설명력만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분석 방법의 제한점이 있다. Shapiro(1994)는 한 개인이 4가지 통제양식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한 개인에 대해 4가지 통제양식의 프로파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제양식이 건강이나 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개별적인 통제양식과 적응지표 간의 관계보다는 통제양식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 수용양식과 부정적 주장양식이 전통적인 통제 패러다임에서 연구되어 온 통제양식들(긍정적 주장양식 및 부정적 수용양식)과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 연구가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긍정적 주장양식과 긍정적 수용양식이 모두 높은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심리적 적응을 더 잘할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 주장양식과 부정적 수용양식이 모두 높은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심리적 적응이 떨어질 것이다. 연구가설 2. 긍정적 수용양식(이차적 통제)은 다른 통제양식과 상호작용하여 적응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 주장양식(과도한 일차적 통제)은 다른 통제양식과 상호작용하여 적응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 방 법

### 참가자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52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남자 204명(38.7%), 여자 323명(61.3%)이며, 평균연령은 21.69(SD=3.56)세였다. 한국판 Shapiro 통제척도(K-SCI)와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중 우울, 불안 차원 척도를 포함한 설문 을 수업시간 중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 완성시 간은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 측정도구

#### 한국판 Shapiro 통제척도(K-SCI)

Shapiro(1994)가 개발한 Shapiro Control Inventory (SCI)를 성승연과 박성현(2008)이 번안한 한국판 Shapiro 통제척도(K-SCI)를 사용하였다. 일반 통제영역에서 긍정적 통제감, 부정적 통제감의 두 가지 하위 척도와 네 가지 통제양식 척도(긍정적 주장양식, 긍정적 수용양식, 부정적 주장양식 및 부정적 수용양식)를 사용하였다.

일반 통제영역 중 긍정적 통제감과 부정적 통제감은 통제력에 대한 현재의 지각을 측정한다. 긍정적 통제감에 해당하는 문항으로는 “나는 적절한 수준의 자기 통제력을 지니고 있다”, “내 삶에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등이 포함된다. 부정적 통제감은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 “내 주변 환경(다른 사람,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통제양식 척도는 4가지 통제양식을 대표하는 단어나 어구들을 제시한 후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잘 나타내 는지를 질문한다. ‘전혀 잘 나타내지 못한다’(1점)에서 ‘완전히 잘 나타낸다’(4점)의 4점 리커트식으로 평정하 게 한다. 긍정적 주장양식 해당 문항으로는 ‘독립적인’ ‘결단력 있는’ ‘주체적인’ ‘목적이 있는’ 등이 해당되며, 긍정적 수용양식 문항에는 ‘온화한’ ‘경청하는’ ‘흐름에 맡기는’ ‘받아들이는’ 등이 포함된다. 부정적 주장양식 문항으로는 ‘독단적인’ ‘조종하는’ ‘공격적인’ ‘완고한’

등이 있으며, 부정적 수용양식 문항으로는 ‘우유부단한’ ‘방어적인’ ‘의존하는’ ‘억누르는’ 등이 있다. 척도 번안 시 보고한 하위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716 ~ .868 이었다. 이 연구에서 하위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735 ~ .874 였다.

####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김광일, 김재환과 원호택(1984)이 표준화된 검사로서 총 9개의 증상 차원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불안과 우울의 2개 증상 차원만을 측정하였다. 검사 내용은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0점)에서 ‘아주 심하다’(4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불안 문항에는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된다”, “무슨 일이든 조금해서 안절부절 한다” 등이 있다. 우울 문항에는 “허무한 느낌이 든다”, “매사에 걱정이 많다” 등이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 불안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90, 우울 척도는 .907이었다.

#### 자료분석

통제감, 통제양식, 우울, 및 불안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심리적 적응에 대한 최적의 통제양식이 무엇인가(가설 1)를 살펴보기 위해 긍정적 주장양식 상하 집단 과 긍정적 수용양식 상하 집단을 조합한 4집단과 부정적 주장양식 상하 집단과 부정적 수용양식 상하 집단을 조합한 4집단을 구성하였다. 이후 집단 간에 긍정적 통제감, 부정적 통제감, 우울 및 불안 점수에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 검증은 Bonferroni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통제양식 중 새로운 구성개념인 긍정적 수용양식과 부정적 주장양식이 다른 통제양식들과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적응을 설명하는가(가설 2)를 분석 하였다. 긍정적 수용양식(일차적 통제)이 긍정적 주장양식(일차적 통제)과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적응을 더욱 증가시킬 것인가가 분석의 목적이었다. 또한, 부정적 수용양식(일차적 통제의 상실)이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긍정적 수용양식이 완충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부정적 주장양식(과도한 일차적 통제)의

경우 긍정적 주장양식 및 부정적 수용양식과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적응을 감소시키거나 부적응을 더 증폭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전체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상관분석

Shapiro(1994)가 제안한 통제감, 통제양식 및 우울, 불안 간의 전반적인 관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변량 상관계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긍정적 주장양식은 긍정적 통제감과 높은 정적 상관( $r=.52, p<.001$ )을 부정적 통제감과는 부적 상관( $r=-.15, p<.001$ )을 보였다. 긍정적 주장양식은 긍정적 수용양식과는 정적 관계( $r=.32, p<.001$ )를 부정적 수용양식과는 부적 관계( $r=-.29, p<.001$ )를 보였으나, 부정적 주장양식과도 상당한 정적 상관( $r=.49, p<.001$ )을 나타냈다. 우울과는 낮은 수준의 부적 관계( $r=-.10, p<.05$ )를 보였으며 불안과는 상관이 없었다( $r=-.01, ns$ ).

긍정적 수용양식은 긍정적 통제감과 정적 관계( $r=.21, p<.001$ )가 있었으나, 부정적 통제감과는 관련이 없었다( $r=-.01, ns$ ). 긍정적 수용양식은 부정적 수용양식과도 정적 상관( $r=.23, p<.001$ )이 나타났다. 우울

( $r=.08, ns$ ) 및 불안( $r=.07, ns$ )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정적 주장양식의 경우 긍정적 통제감( $r=.14, p<.001$ ) 및 부정적 통제감( $r=.22, p<.001$ ) 모두와 정적 관계를 나타냈고, 부정적 수용양식과도 정적인 상관( $r=.13, p<.01$ )이 있었다. 우울( $r=.25, p<.001$ ), 불안( $r=.30, p<.001$ )과는 상당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부정적 수용양식은 긍정적 통제감과는 부적 상관( $r=-.31, p<.001$ )을 보였다. 부정적 통제감( $r=.45, p<.001$ ), 우울( $r=.38, p<.001$ ), 및 불안( $r=.32, p<.001$ )과는 상당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상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긍정적 통제감과 부정적 통제감은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이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가 명확하였다. 긍정적 주장양식과 긍정적 수용양식은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가 거의 없거나 약한 부적 관계를 보이는 반면, 부정적 주장양식과 부정적 수용양식은 우울 및 불안과의 정적 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긍정적 주장양식과 부정적 주장양식 및 긍정적 수용양식과 부정적 수용양식 간에 상당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부정적 주장양식은 긍정적 통제감 및 부정적 통제감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긍정적 수용양식의 경우 긍정적 통제감을 제외한 다른 적응지표들(부정적 통제감, 우울, 불안)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긍정적 통제감, 부정적 통제감, 통제양식, 우울, 불안 간의 상관관계 결과

	1	2	3	4	5	6	7	8
1. 긍정적 통제감	—							
2. 부정적 통제감	-.29***	—						
3. 긍정적 주장양식	.52***	-.15***	—					
4. 긍정적 수용양식	.21***	-.01 <sup>ns</sup>	.32***	—				
5. 부정적 주장양식	.14***	.22***	.49***	.05 <sup>ns</sup>	—			
6. 부정적 수용양식	-.31***	.45***	-.29***	.23***	.13**	—		
7. 우울	-.24***	.41***	-.10*	.08 <sup>ns</sup>	.25***	.38***	—	
8. 불안	-.17***	.37***	-.01 <sup>ns</sup>	.07 <sup>ns</sup>	.30***	.32***	.86***	—
M	3.40	1.93	1.39	1.54	1.07	1.23	1.54	1.37
SD	.64	.76	.47	.44	.44	.56	.90	.86

주. n= 527. <sup>ns</sup> non significant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2. 긍정적 주장양식과 긍정적 수용양식 상하 집단 간 차이검증

종속변인	집단	N	평균(SD)	F	Bonferroni
긍정적 통제감	긍정주장하/긍정수용하(1)	164	3.12(.57)	35.88***	(4)>(1),(2),(3) (3)>(1),(2)
	긍정주장하/긍정수용상(2)	97	3.18(.59)		
	긍정주장상/긍정수용하(3)	102	3.52(.54)		
	긍정주장상/긍정수용상(4)	162	3.73(.61)		
부정적 통제감	긍정주장하/긍정수용하(1)	164	2.12(.75)	3.15*	(1)>(3),(4)
	긍정주장하/긍정수용상(2)	97	1.95(.79)		
	긍정주장상/긍정수용하(3)	102	1.84(.69)		
우울	긍정주장하/긍정수용하(1)	164	1.72(.92)	2.97*	(1)>(4)
	긍정주장하/긍정수용상(2)	97	1.54(.93)		
	긍정주장상/긍정수용하(3)	102	1.56(.87)		
	긍정주장상/긍정수용상(4)	161	1.34(.85)		
불안	긍정주장하/긍정수용하(1)	164	1.45(.93)	2.06 <sup>ns</sup>	
	긍정주장하/긍정수용상(2)	97	1.35(.85)		
	긍정주장상/긍정수용하(3)	102	1.46(.75)		
	긍정주장상/긍정수용상(4)	161	1.21(.85)		

주. <sup>ns</sup> non significant \*  $p < .05$ , \*\*  $p < .01$ , \*\*\*  $p < .001$ .

**집단 간 차이 검증**

심리적 적응에 기여하는 최적의 통제양식을 확인하기 위해 긍정적 주장양식 상하 집단과 긍정적 수용양식 상하 집단을 조합한 4 집단 및 부정적 주장양식 상하 집단과 부정적 수용양식 상하 집단을 조합한 4 집단을 구성하였다. 각 통제양식의 상하 집단은 중위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집단 간 긍정적 통제감, 부정적 통제감, 우울 및 불안 점수의 평균 및 차이 검증 결과를 표 2 및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4 집단은 긍정적 통제감 ( $F(3,521)=35.88, p<.001$ ) 부정적 통제감( $F(3,520) =3.15, p<.05$ ) 및 우울( $F(3,520)=2.97, p<.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증 결과를 보면, 긍정적 주장양식과 긍정적 수용양식이 모두 높은 집단(4)은 다른 세 집단에 비해 긍정적 통제감을 더 높게 지각했다. 두 가지 긍정적 양식이 모두 높은 집단(4)은 긍정적 주장양식과 긍정적 수용양식 모두가 낮은 집단(1)에 비해 부정적 통제감과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표 3는 부정적 주장양식 상하 집단과 부정적 수용양식 상하 집단을 조합한 4집단 간 적응지표에서의 차이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 주장양식과 부정적 수용양식이 모두 높은 집단(4)은 다른 세 집단에 비해 부정적 통제감, 우울, 및 불안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긍정적 통제감은 낮게 지각했다.

부정적 수용양식 점수는 높고 부정적 주장양식 점수는 낮은 집단(2)은 두 가지 부정적 양식의 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1)에 비해 긍정적 통제감은 낮게 지각하고, 부정적 통제감은 높게 지각했으며, 우울 수준도 높았다.

부정적 주장양식 점수는 높고 부정적 수용양식 점수는 낮은 집단(3)의 경우, 두 가지 부정적 양식의 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1)과 비교하여, 우울과 불안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 수용양식과 부정적 주장양식이 적응에 미치는 효과 분석**

긍정적 수용양식과 부정적 주장양식이 심리적 적응

표 3. 부정적 주장양식과 부정적 수용양식 상하 집단 간 차이검증

종속변인	집단	N	평균(SD)	F	Bonferroni
긍정적 통제감	부정주장하/부정수용하(1)	158	3.68(.59)	13.58***	(4)<(1),(3) (2)<(1),(3)
	부정주장하/부정수용상(2)	112	3.20(.57)		
	부정주장상/부정수용하(3)	102	3.48(.70)		
	부정주장상/부정수용상(4)	153	3.29(.60)		
부정적 통제감	부정주장하/부정수용하(1)	158	1.64(.57)	24.03***	(4)>(1),(2),(3) (2)>(1)
	부정주장하/부정수용상(2)	112	1.98(.63)		
	부정주장상/부정수용하(3)	102	1.77(.62)		
	부정주장상/부정수용상(4)	152	2.30(.93)		
우울	부정주장하/부정수용하(1)	158	1.15(.73)	27.02***	(4)>(1),(2),(3) (2),(3)>(1)
	부정주장하/부정수용상(2)	112	1.55(.82)		
	부정주장상/부정수용하(3)	102	1.47(.83)		
	부정주장상/부정수용상(4)	152	2.00(.96)		
불안	부정주장하/부정수용하(1)	158	1.03(.69)	28.50***	(4)>(1),(2),(3) (3)>(1)
	부정주장하/부정수용상(2)	112	1.23(.75)		
	부정주장상/부정수용하(3)	102	1.39(.83)		
	부정주장상/부정수용상(4)	152	1.84(.92)		

주. <sup>ns</sup> non significant \*  $p < .05$ , \*\*  $p < .01$ , \*\*\*  $p < .001$ .

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위 두 가지 통제양식과 다른 통제양식들(긍정적 주장양식과 부정적 수용양식)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상호작용 분석을 위해 각 예측변인을 평균 중심화한 후 이들의 곱으로 상호작용 항을 생성하였다. 평균 중심화는 예측변인과 상호작용 항과의 다중 공선성을 피하고, 결과 해석을 용이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홍세희, 2007). 분석 결과는 표 4과 표 5에 제시하였다.

긍정적 수용양식은 긍정적 주장양식 및 부정적 수용양식과 상호작용하여 부정적 통제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적응지표들에 대해 심리적 적응을 조절하는 효과를 보였다. 긍정적 통제감에 대해 긍정적 수용양식과 긍정적 주장양식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beta=.09$ ,  $p<.05$ ). 긍정적 수용양식과 부정적 수용양식은 우울( $\beta=-.11$ ,  $p<.01$ )과 불안( $\beta=-.13$ ,  $p<.01$ )에 대하여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긍정적 수용양식의 조절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 그림 1, 그림 2, 그림 3에 상호작용 패턴을 제시하였다. 긍정적 통제감을 준거변인으로 한 경우 긍정적 수용양식이 평균일 때 회귀식은 긍정적 통제감 = 3.38

+ .68(긍정주장) + .06(긍정수용) + .21(긍정주장\*긍정수용)이다. 긍정적 수용양식이 -1표준편차(-.44)인 경우 회귀식은 긍정적 통제감 = 3.35 + .59(긍정주장), 평균(0)인 경우 긍정적 통제감 = 3.38 + .68(긍정주장), 그리고 +1표준편차(+.44)인 경우 긍정적 통제감 = 3.41 + .77(긍정주장)이었다. 그림 1은 긍정적 주장양식(X축)이 긍정적 통제감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긍정적 수용양식이 높아짐에 따라 더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는 부정적 수용양식(X축)이 우울에 미치는 정적 효과가 긍정적 수용양식 점수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그림 3은 부정적 수용양식(X축)이 불안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긍정적 수용양식이 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정적 주장양식의 경우는 긍정적 통제감을 제외한 세 가지 부적응 지표와 관련하여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부정적 주장양식은 부정적 수용양식과 상호작용하여 부정적 통제감( $\beta=.11$ ,  $p<.01$ ), 우울( $\beta=.11$ ,  $p<.01$ ), 불안( $\beta=.15$ ,  $p<.001$ )을 더 증폭시켰다.



표 4. 긍정적 통제감, 부정적 통제감,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긍정적 수용양식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준거변인	예측변인	B	$\beta$	$\Delta R^2$	
긍정적통제감	단계1	(상수)			
		3.39			
		.69	.51***	.28***	
		.07	.05 <sup>ns</sup>		
	단계2	(상수)	3.38		
		.68	.50***	.02*	
	.06	.04 <sup>ns</sup>			
	.21	.09*			
부정적통제감	단계1	(상수)	1.93		
		.65	.48***	.22***	
		-.21	-.12**		
	단계2	(상수)	1.93		
		.66	.48***	.00 <sup>ns</sup>	
		-.21	-.12**		
	-.05	-.02 <sup>ns</sup>			
우울	단계1	(상수)	1.54		
		.60	.38***	.14***	
		-.02	-.01 <sup>ns</sup>		
	단계2	(상수)	1.56		
		.63	.39***	.02**	
		-.03	-.01 <sup>ns</sup>		
	-.35	-.11**			
불안	단계1	(상수)	1.38		
		.49	.32***	.32***	
		-.01	-.01 <sup>ns</sup>		
	단계2	(상수)	1.40		
		.52	.34***	.02**	
		-.03	-.01 <sup>ns</sup>		
	-.41	-.13**			

주. 긍정주장 : 긍정적 주장양식, 긍정수용 : 긍정적 수용양식, 부정수용 : 부정적 수용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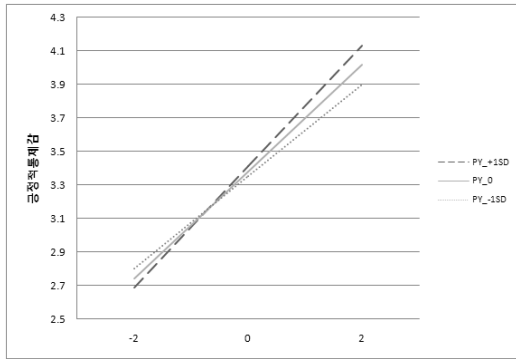
<sup>ns</sup> non significant,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5. 긍정적 통제감, 부정적 통제감,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부정적 주장양식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준거변인	예측변인	B	$\beta$	$\Delta R^2$
긍정적통제감	단계1	(상수)	3.40	
	긍정주장	.82	.60***	.30***
	부정주장	-.23	-.16***	
	단계2	(상수)	3.41	
	긍정주장	.83	.62***	.00 <sup>ns</sup>
	부정주장	-.22	-.15***	
긍정주장*부정주장	-.13	-.05 <sup>ns</sup>		
부정적통제감	단계1	(상수)	1.93	
	부정수용	.59	.43***	.23***
	부정주장	.29	.17***	
	단계2	(상수)	1.92	
	부정수용	.58	.43***	.02**
	부정주장	.28	.16***	
부정수용*부정주장	.32	.11**		
우울	단계1	(상수)	1.54	
	부정수용	.56	.35***	.18***
	부정주장	.43	.21***	
	단계2	(상수)	1.53	
	부정수용	.55	.34***	.02**
	부정주장	.42	.20***	
부정수용*부정주장	.39	.11**		
불안	단계1	(상수)	1.38	
	부정수용	.44	.28***	.17***
	부정주장	.53	.27***	
	단계2	(상수)	1.36	
	부정수용	.51	.27***	.03***
	부정주장	.42	.26***	
부정수용*부정주장	.52	.15***		

주. 긍정주장 : 긍정적 주장양식, 부정주장 : 부정적 주장양식, 부정수용 : 부정적 수용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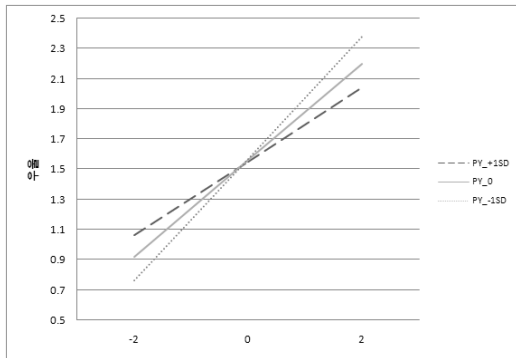
<sup>ns</sup> non significant,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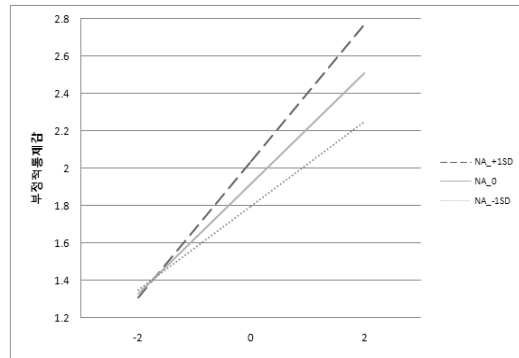
주. PY: 긍정적 수용양식.  
 그림 1. 긍정적 통제감에 대한 긍정적 주장양식과 긍정적 수용양식의 상호작용 효과

부정적 통제감의 경우, 부정적 주장양식의 수준에 따른 회귀계수의 변화를 보면 -1표준편차(-.44)일 경우 부정적 통제감 =  $1.80 + .44(\text{부정수용})$ , 평균(0)일 경우 부정적 통제감 =  $1.92 + .58(\text{부정수용})$ , +1표준편차(.44)일 경우 부정적 통제감 =  $2.04 + .72(\text{부정수용})$ 이었다. 그림 4는 부정적 수용양식(X축)이 부정적 통제감에 미치는 정적 효과가 부정적 주장양식이 커질수록 더 증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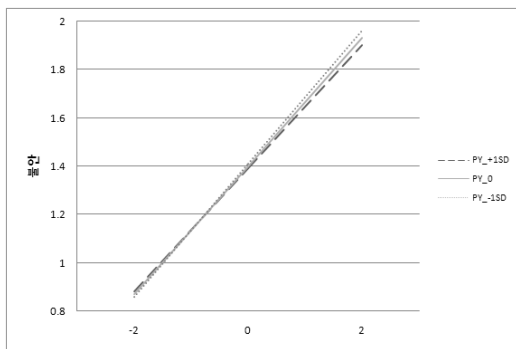
그림 5는 부정적 수용양식(X축)이 우울에 미치는 정적 효과가 부정적 주장양식이 커질수록 더욱 강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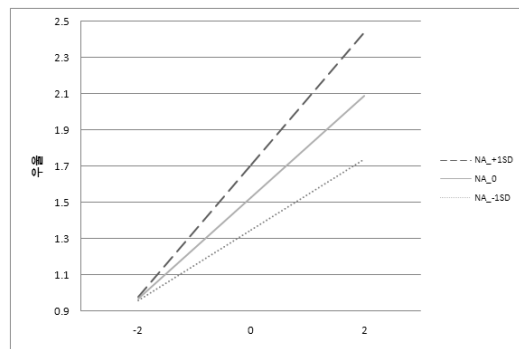
주. PY: 긍정적 수용양식.  
 그림 2. 우울에 대한 부정적 수용양식과 긍정적 수용양식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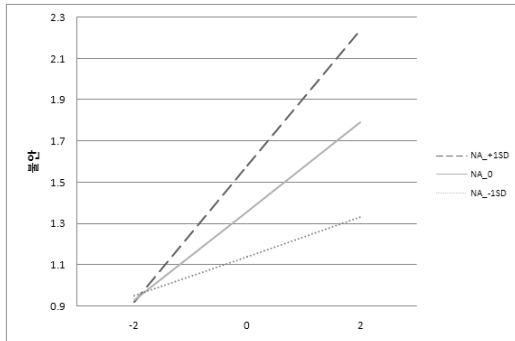
주. NA: 부정적 주장양식.  
 그림 4. 부정적 통제감에 대한 부정적 수용양식과 부정적 주장양식의 상호작용 효과



주. PY: 긍정적 수용양식.  
 그림 3. 불안에 대한 부정적 수용양식과 긍정적 수용양식의 상호작용 효과



주. NA: 부정적 주장양식.  
 그림 5. 우울에 대한 부정적 수용양식과 부정적 주장양식의 상호작용 효과



주. NA: 부정적 주장양식.

그림 6. 불안에 대한 부정적 수용양식과 부정적 주장양식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6은 부정적 수용양식(X축)이 불안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부정적 주장양식이 높아질수록 더욱 강해지는 패턴을 보여준다.

## 논 의

이 연구에서는 Shapiro(1994)의 다차원적 통제 개념을 중심으로 통제양식이 심리적 적응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되는가를 조사하였다. 통제양식들 중 특히, 긍정적 수용양식 및 부정적 주장양식의 심리적 적응 관련성이 주된 연구의 관심사였다. 이 둘 두 가지 통제양식은 기존의 통제 이론과 비교하여 통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Shapiro(1994)가 제안한 바와 같이 긍정적 주장양식과 긍정적 수용양식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집단의 심리적 적응 수준이 가장 높았다. 긍정적 주장양식이 높고 긍정적 수용양식이 낮은 집단은 긍정적 주장양식이 낮고 긍정적 수용양식이 높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리적 적응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두 가지 긍정적 통제양식의 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은 긍정적 통제감은 낮았고, 부정적 통제감과 우울은 높았다. 부정적 주장양식과 부정적 수용양식 점수가 모두 높은 집단은 심리적 적응 수준이 가장 낮았다. 부정적 주장양식이 낮고 부정적 수용양식이 높은 그룹은 두 가지 부정적 통제양식의 점수가 모두 낮은 그룹에 비해 긍정적 통제감은 낮았고,

부정적 통제감과 우울은 높았다. 부정적 주장양식이 높고 부정적 수용양식은 낮은 집단은 두 가지 부정적 양식의 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에 비해 우울과 불안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긍정적 수용양식은 적응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통제양식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적 적응을 조절하는 양상을 보였다. 긍정적 수용양식은 긍정적 주장양식과 상호작용하여 긍정적 통제감을 더 증가시켰고, 부정적 수용양식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였다. 부정적 주장양식의 경우 적응지표들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면서도, 다른 통제양식들과 연합하여 심리적 적응을 조절했다. 부정적 주장양식은 부정적 수용양식이 부정적 통제감,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정적 효과를 더욱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연구 결과에서 모호했던 부분 중 하나는 긍정적 주장양식과 부정적 주장양식 및 긍정적 수용양식과 부정적 수용양식 간에 상당한 정적 상관이 나타난 점이다. 또한, 부정적 주장양식의 경우 긍정적 통제감 및 부정적 통제감 모두와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 통제양식의 구성개념이 분명치 않거나 측정 방법상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의 견해로는 네 가지 통제양식의 구성개념은 비교적 타당하게 구분되는 것 같다. 반면, 측정 상의 타당도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다. Shapiro(1994)의 통제양식 문항을 보면, 성격과 관련된 형용사들이 자신을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는가로 통제양식을 측정한다. “독립적인” “결단력 있는” 등은 긍정적 주장양식을, “독단적인” “완고한” 등은 부정적 주장양식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긍정적 수용양식 문항에는 “은화한” “반아들이는” 등이 있으며, 부정적 수용양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의존하는” “소심한” 등이 포함된다. 측정 문항들의 평가적 측면(긍정성과 부정성)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나, 준거적 측면(주장성과 수용성)에서는 분명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 즉, 독립적이거나 결단력이 있는 것과 독단적이거나 완고한 측면은 준거 면에서 모두 주장적이다. 이러한 면에서 긍정적 통제양식과 부정적 통제양식 간의 정적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Sternberg(2000)는 구성개념이 특질(trait)인지, 상태

(state)인지 혹은 양식(mode)인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그 측정 방법 또한 구성개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성격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 특질적인 측면을 다루므로, Shapiro가 제안한 바대로 통제의 양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측정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통제양식은 일종의 대처방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하는가를 보여주는 측정 방식이 더 적합하다(예를 들어, 긍정적 주장양식의 경우, “문제가 부딪혔을 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긍정적 수용양식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여유를 갖고 상황을 지켜본다”).

부정적 주장양식이 긍정적/부정적 통제감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이유는 부정적 주장양식과 긍정적 주장양식 간의 높은 상관에 따른 일종의 허위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주장양식을 통제한 후 부정적 주장양식과 긍정적/부정적 통제감 간의 편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정적 주장양식과 긍정적 통제감의 편 상관 계수는 0차 상관( $r=.14, p<.001$ )과 다르게 부적으로 유의하며( $r=-.16, p<.001$ ), 부정적 통제감과의 편 상관 계수( $r=.34, p<.001$ )는 0차 상관( $r=.22, p<.001$ ) 보다 크게 나타난다. 긍정적 수용양식의 경우 부정적 통제감과 부적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또한 긍정적 수용양식과 부정적 수용양식 간의 높은 관련성 때문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부정적 수용양식을 통제한 상태에서 긍정적 수용양식과 긍정적/부정적 통제감 간 상관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 수용양식과 부정적 통제감과의 편 상관은 0차 상관( $r=-.01, ns$ )과 달리 유의한 부적 상관( $r=-.13, p<.01$ )이 나타나며, 긍정적 통제감과의 상관계수는 0차 상관( $r=.21, p<.001$ )값보다 크기가 커진 정적 상관 값( $r=.30, p<.001$ )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정적 주장양식을 통제한 상태에서 긍정적 주장양식과 우울, 불안 간 편 상관계수를 도출해 보아도 나타난다. 즉, 0차 상관에서는 긍정적 주장양식과 우울( $r=-.10, p<.05$ ), 불안( $r=-.01, ns$ )의 상관이 낮게 나타나나 편 상관 계수는 각각 우울( $r=-.27, p<.001$ ), 불안( $r=-.19, p<.001$ )로 커진다.

이와 더불어, 통제양식에 대한 문화적 선호도에서의 차이가 위와 같은 측정 상의 타당도 문제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서구 사회는 개인의 주체성과 개별성을 강조하는 개인 중심적 문화가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주장성은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나, 수용성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반면, 동양 사회는 집단 전체의 목표나 이익을 위해 개별성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를 선호하는 집단 중심적 문화이다. 이에 따라, 수용성은 긍정적으로 주장성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서양인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수용양식(예를 들어, 의존하는, 억누르는)들이 동양인들에게는 집단적, 관계적 문화에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식이다. 반대로, 서양인들에게는 긍정적인 주장양식(예를 들어, 주장적인, 독립적인)들이 동양인들에게는 부정적인 니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통제양식에 대한 문화적 해석의 차이에 따라 통제양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에서 제기한 측정상의 결과(긍정적 주장양식과 부정적 주장양식 간의 정적 상관 및 긍정적 수용양식과 부정적 수용양식 간의 정적 상관)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개연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화 간 차이에 따라 주장적 통제양식과 수용적 통제양식의 선호도가 다른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측정 상의 문제로 기인한 결과 분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적응이 통제양식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절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연구의 성과라고 할 만하다. Shapiro 등(1996)이 제안한 최적의 통제양식은 일차적이고 적극적인 통제방식과 함께 이차적이고 수용적인 통제 방식을 상황과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제양식 각각이 적응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통제양식 간의 상호작용이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최적의 통제양식이란 개념을 설명하는데 더 유용하다.

Morling과 Evered(2006)는 이차적 통제와 관련한 네 가지 연구주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이차적 통제는 독립적으로 적응에 유익한가? 둘째, 이차적 통제를 하는 것이 통제감을 향상시키는가? 셋째, 이차적 통제는 시간적으로 일차적 통제에 비해 이차적인가? 넷째, 이차적 통제는 일차적 통제의 보조적, 부차

적 기능을 하는가? 등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긍정적 수용양식이 정확히 이차적 통제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상당 부분 공통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위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 수용양식은 독립적으로 심리적 적응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긍정적 주장양식 점수는 낮고 긍정적 수용양식 점수는 높은 집단의 경우 두 가지 긍정적 통제양식 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과 비교하여 심리적 적응지표 수준에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이 집단은 긍정적 주장양식 점수는 높고 긍정적 수용양식 점수는 낮은 집단에 비해 긍정적 통제감을 유의하게 낮게 지각했다. 이 연구의 결과로만 보면 긍정적 수용양식이 독립적으로 적응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독립적으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긍정적 주장양식의 경우와 다르다. 긍정적 수용양식은 긍정적 주장양식과 결합되었을 때 적응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차적 통제가 독립적으로 적응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선행 연구들(Chipperfield, Perry, & Menec, 1999; McQuillen et al., 2003; Thompson, Thomas, Rickabaugh, Peerapong, Otsuki, Pan, et al., 1998)의 결과와는 다르다. 위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노인이나 만성 질병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일차적 통제로는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연구의 결과는 젊은 대학생들의 경우, 긍정적 주장양식(일차적 통제양식)이 긍정적 수용양식(이차적 통제양식)에 비해 적응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앞으로 발달적인 입장에서 통제양식이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긍정적 수용양식은 긍정적 주장양식(일차적 통제)과 연합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긍정적 통제감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집단 간 차이분석과 상호작용 분석의 결과 모두 이를 지지한다. 긍정적 통제감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긍정적 수용양식과 긍정적 주장양식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했을 경우, 긍정적 수용양식의 편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

면, 긍정적 주장양식과 긍정적 수용양식의 상호작용은 유의했다. 이는 긍정적 수용양식이 긍정적 주장양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차적 통제와 이차적 통제는 그 동기 면에서 완전히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있다(Brandtstadter, Rothermund, & Schmitz, 1998; Skinner, Edge, Altman, & Sherwood, 2003). Skinner 등(2003)에 따르면 일차적 통제의 동기는 환경을 자기 안에 동화시키려는데(assimilative strategies)있는 반면, 이차적 통제는 자기를 환경에 맞게 조절하는 전략(accommodative strategies)이다. 통제의 방향으로만 볼 때 이 두 가지 통제 방식은 완전히 독립적인 기능처럼 보인다. 그런데, Brandtstadter 등(1998)은 동화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만, 조절은 자기를 적응시킨다는 점에서 대상은 다르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하면서 다른 방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차적 통제와 이차적 통제는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Morling 등(2006) 또한 일차적 통제와 이차적 통제의 관계가 상보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느낌(이차적 통제)은 궁극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일차적 통제)을 뒷받침하며, 반대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일차적 통제)은 일차적 통제의 대가가 일시적으로 매우 높더라도 이를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차적 통제)을 유지시켜준다는 것이다.

이차적 통제가 시간적으로 일차적 통제에 뒤이어 나타나는가라는 주제는 이차적 통제는 일차적 통제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 일어나는 경향이 강하다는 Rothbaum 등(1982)의 제안에서 비롯되었다. Thompson, Collins, Newcomb, & Hunt(1996)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서 이 문제를 연구했으나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수감자들의 경우 투옥으로 인해 일차적 통제 지각이 감소하면 자연발생적으로 이차적 통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일차적 통제와 이차적 통제 수준은 안정적인 양상을 보였다(Morling & Evered, 2006에서 재인용). 그러나

Morling 등(2006)은 수감자들의 일차적 통제 수준이 변화되지 않았으므로, 이차적 통제를 증가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들며 Thompson 등(1996)의 결과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차적 통제와 이차적 통제의 시간적 관계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차적 통제가 일차적 통제의 실패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다분히 서구 중심적인 사고에 입각한 제안일 수 있다. 동양의 경우, 서양의 경우만큼 일차적 통제가 우선시되지 않을 것이다. 동양인들의 통제 방식에 대한 연구들(최상진, 1995; Bond & Hwang, 1986; Morling et al., 2002)은 동양인의 경우 이차적 통제양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차적 통제양식이 사회적으로 더 선호된다고 보고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문화간 연구 또한 흥미로울 것이다.

Shapiro(1994)는 개인 별로 적절한 통제 전략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통제양식 프로파일을 작성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부정적 수용양식이 높은 경우 자기 주장 훈련이나 활동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통제기법이 필요하며, 반대로 부정적 주장양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이완이나 명상과 같은 수용적인 통제전략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부정적 통제양식이 적응에 미치는 악영향을 긍정적 통제양식이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일부 밝혔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 별 통제 프로파일에 따른 적절한 개입방법의 효과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상희, 최정훈 (1990). 이차적 통제의 적응적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08-119.
- 김정호 (2004). 마음챙김이란 무엇인가: 마음챙김의 임상적 및 일상적 적용을 위한 제언.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511-538.
- 문현미 (2005). 인지행동치료의 제 3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5-33.
- 성승연, 박성현 (2008). 한국판 Shapiro 통제척도 (K-SCI)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11-132.
- 양정운 (1999). 사회지향성, 자율지향성과 부정적 생활사건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성격-사건 일치가 설과 증상 특정성 가설.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궁호 (2003). 문화성향과 통제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85-106.
- 최상진 (1995). 한국인의 통제유형. 임능빈 편. 동양사상과 심리학 (pp. 535-543). 서울: 성원사.
- 홍세희 (2007).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I.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Affleck, G., Tunnen, H., Pfeiffer, C., & Fifield, J. (1987). Appraisals of control and predictability in adapting to a chronic disea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273-239.
- Bond, M. H., & Hwang, K. K. (1986). The Social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In M. H. Bond(Ed.), *The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pp, 213-26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randtstädter, J., Rothermund, K., & Schmitz, U. (1998). Maintaining self-integrity and efficacy through adulthood and later life: The adaptive functions of assimilative persistence and accomodative flexibility. In J. Heckhausen & C. S. Dweck (Eds.),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across the lifespan* (pp. 365-388).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rger, J. M. (1989). Negative Reactions to Increases in Perceived Personal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246-256.
- Chang, W. C., Chua, W. L., & Toh, Y. (1997). The concept of psychological control in the Asian context, In K. Leung, U. Kim, S. Yamaguchi, & Y. Kashima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Vol. 1, pp, 95-117). Singapore: WILEY.

- Chipperfield, J. G., & Perry, R. P. (2006).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Strategies in Later Life: Predicting Hospital Outcomes in Men and Women. *Health Psychology, 25*(2), 226-236.
- Chipperfield, J. G., & Perry, R. P. (2006).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Strategies in Later Life: Predicting Hospital Outcomes in Men and Women. *Health Psychology, 25*(2), 226-236.
- Evans, G. E., Shapiro, D. H., & Lewis, M. (1993). Specifying dysfunctional mismatches between different control dimension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4*, 255-273.
- Jensen, M. P., & Karoly, P. (1991). Control beliefs, coping effort, and adjustment to chronic pai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431-438.
- Marlatt, G. A. (1983). The controlled-drinking controversy: A commentary. *American Psychologist, 38*, 1097-1110.
- McQuillen, A. D., Licht, M. H., & Licht, B. G. (2003). Contributions of Disease Severity and Perceptions of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to the Prediction of Psychosocial Adjustment to Parkinson's Disease. *Health Psychology, 22*(5), 504-512.
- Morling, B., Kitayama, S., & Miyamoto, Y. (2002). Cultural practices emphasize influence in the U. S. and adjustment in Ja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311-323.
- Morling, M., & Evered, S. (2006). Secondary Control Reviewed and Defined. *Psychological Bulletin, 132*(2), 269-296.
- Peterson, C., & Stunkard, J. (1989). Personal Control and Health Promotio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8*, 819-828.
- Rothbaum, F., Weisz, J. R., & Snyder, S. (1982). Changing the world and changing the self: A two-process model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5-37.
- Shapiro, D. H. (1990). Clinical application of a quadrant model of control: Two case studies of related disorders. *The psychotherapy patient, 7*(1/2), 169-198.
- Shapiro, D. H. (1994). *Manual for the Shapiro control Inventory (SCI)*. Palo Alto, CA: Behaviordata.
- Shapiro, D. H., & Astin, J. A. (1998). *Control Therapy: An Integrated Approach to Psychotherapy, Health, and Heal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Shapiro, D. H., Schwartz, C. B., & Astin, J. A. (1996). Controlling ourselves, Controlling our world: Psychology's role in understanding Positive and Negative consequence of seeking and gaining control. *American Psychologist, 51*, 1213-1230.
- Skinner, E. A., Edge, K., Altman, J., & Sherwood, H. (2003). Searching for the structure of coping: A review and critique of category systems for classifying ways of coping. *Psychological Bulletin, 129*, 216-269.
- Soenens, B., Luyckx, K., Vansteenkiste, M., Luyten, P., Duriez, B., & Goossens, L. (2008). Maladaptive Perfectionism as an Intervening Variable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465-474.
- Souza, M. D., Mussap, A. J., & Cummins, R. A. (2010). Primary and secondary over eating behaviors. *Eating Behaviors, 11*, 223-230.
- Sternberg, J. R. (2000). Images of Mindfulnes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6, No. 1*, 11-27.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aylor, S. E., & Brown, J. D. (1994a). Positive illusion



- and well-being revisited : Separating fact from f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6, 21-27.
- Talyor, S. E., & Brown, J. D. (1994b). "Illusion" of mental health does not explain positive illusions. *American Psychologist*, 49, 972-973.
- Thompson, S. C., Collins, M. A., Newcomb, M. D., & Hunt, W. (1996). On fighting versus accepting stressful circumstances: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among HIV-positive men in p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307-1317.
- Wahl, H. W., Becker, S., Burmedi, D., & Schilling, O. (2004). The Role of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in Adaptation to Age-Related Vision Loss: A Study of Older Adults with Macular Degeneration. *Psychology and Aging*, 19(1), 235-239.
- Weisz, J. R., Rothbaum, F. M., & Blackburn, T. C. (1984). Standing out and standing in: The psychology of control in America and Japan. *American Psychologist*, 39, 955-969.
- Wrosch, C., Heckhausen, J., & Lachman, M. E. (2000).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Strategies for Managing Health and Financial Stress Across Adulthood. *Psychology and Aging*, 15(3), 387-399.

## The Relation among Modes of Contro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Sung-Hyun Park Seoung-Yun Sung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Shapiro suggested new concept to measure the positive aspect of secondary control(positive yielding mode) as well as the negative aspect of primary contr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optimum combination among control modes for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Subjects were grouped according to their control mode scores into high or low groups and then grouped again with assertive and yielding modes, resulting 8 groups. The ANOVA was used to test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 on psychological adaptation among each groups.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way how the negative assertive mode and the positive yielding mode contribute to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To do thi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among two control mode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positive assertive and negative yielding modes. The result showed that those who were high on positive assertive mode and positive yielding mode had not only higher sense of positive control but lower sense of negative control than others. They also showed lower level of depression. Those who were negatively high on both, on the other hand, showed low sense of positive control and high sense ho negative control. They were more depressed and anxious than others. The negative assertive mode interacted with other control mode, deducing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but the positive yielding mode increased it or alleviated the deterioration of adaption at least.

*Keywords: Control, Modes of control, Positive yielding mode of control, Negative assertive mode of control, Psychological adaptation*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03월 14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1년 05월 28일  
게재 확정일 : 2011년 05월 29일